민주, 너무 나갔나…정부조직법 퇴로찾기 고심

국정공백 장기화·안보위기 가중 속 정치적 부담 커져

양보안 당내 반발도…청문회 통과 장관 임명 지연 비판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면 대치 국면에서 퇴로를 찾기 위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인선 요건 강화 등 3대 제안을 전제로 정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을 공식 제시한 것도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한 고민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양보안을 단호하게 거부한데다 당내 강경론자들을 중심으로 비판론이 여전히 제기되며 퇴로 찾기도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PBS 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의 양보안 내용과 제안 방법, 시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작위적인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지만 "지금까지 방송장악을 막기위해 SO(종합유선방송)와 IPTV(인터넷TV)의 방송통신위 잔류를 주장한 명분을 스스로 철회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고 하니,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달라는 요구였다"고 전날 양보안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권상정 카드를 제시하면서 민주당은 강도 높은 반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북한이 정전협정까지 파기하겠다는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굴복시키기 위해 통일부, 외교부 장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안보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수록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과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비상시국 주장으로 국회와 민주당 압박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SO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관리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은 전날 방송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부에 두되 미래부의 법령 제·개정시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미래부에 대한 상시 감사권을 방통위에 주는 방안 등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동관리를 통한 방송장악 저지 장치만 여야 협상을 통해 충분히 확보한다면, 정부 여당이 SO의 채널 배정권에 미칠 영향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어색한 여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막히자 與 "국회선진화법 폐기" 논란

"식물국회 주범" "협상력 부재" 갑론을박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가 직권상정을 엄격한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표결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저희가 과반수를 가진 정당인데도 과반수를 가진 정당이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선진화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국회법에 제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도부는 지금 다 그쪽으로 생각을 모은 거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결국 국회법은 국회를 식물로 만들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쇄신파인 5선의 남경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이지 국회 선진화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8대 국회 말인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며 '폭력국회'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마련됐지만, 과반을 기본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면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분열은 필패" 안철수 견제

독자 세력화땐 존립 기반 흔들…'야권연대'로 묶어두기

민주통합당이 4·24 노원 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교수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분열은 필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 전 교수를 '야권 연대'의 프레임에 묶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안 전 교수가 신당 창당 등을 통해 독자 세력화를 본격화할 경우, 야권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안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 문제에 대해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좋은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안 전 교수가) 분열의 씨앗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신당을 창당한다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안 전 교수가 새 정치를 지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패배를 위한 새 정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야권연합 또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주류 소장파인 김기식 의원도 불교방송에 출연, "야권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거대 여권에 맞선 연대와 연합의 요구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이 누구에게 득이 될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주류 측에서도 안 전 교수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도 그의 '마이웨이' 행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은근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때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민주당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할지 여부를 좀 더 당당하고 편하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安측 "한심한 정치 상황이 安 등판"

여야 격렬대치·청와대 국정난맥 등 싸잡아 비판

안철수 전 교수의 4·24 노원 병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결정의 배경에는 '한심한 정치 상황'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전 교수 진영의 정기남 전 비서실 부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안 전 교수의 재보선 출마라는 결단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장관도 제대로 임명 못하는 등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고, 127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은 계파 투쟁에 매몰돼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현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 전 부실장은 안 전 교수가 출마지역으로 노원 병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선거의 유불리라는 정치적 셈법에서 절대 출발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치 시작을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전망에 대해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벌어지는 '허니문' 재보선이고, 혈혈단신 무소속 후보인데 당선을 장담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구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얻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 정 전 부실장은 "창당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며 "자연스럽게 재보선 출마를 계기로 야당 간 경쟁구도가 불가피해지고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신당 창당 후 정치지형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실제로 민주당 인사들이 당을 깨고 나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같은 방식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재오 "굴종 강요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교착상태 정부조직법 여권 정치력 부재 맹공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과정에서 여권의 정치력 부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밤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참으로 답답하다. 힘 있는 자가 양보하면 포용과 아량이 되지만 약한 자가 양보하면 굴종이 된다"면서 "파트너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은 누구든지 먼저 내려놓는 측이 박수를 받는다"면서 "정치는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 지도자일수록 목소리가 작아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힘이 어디에 있는 지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지금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지 올바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원안 고수를 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40평
현 토지가격
450만 정도
대형식당
교회,뷔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15억 융자있음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치동 대지 330㎡ 건물 79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예상) 매매가 7억8천(보 1억6천만, 융자 1억5천만)
◆상가매매◆
• 신용동 첨단2지구 110㎡ 월수익400만원 매매가 8억원 (보증금 5천만 융자4억원 이동통신점 입점예정)
• 신용동 첨단2지구 66㎡ 호반주출입구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원
분양
• 용두동 첨단지이2차 110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당544만원 매매가 2억6천만원
• 용두동 첨단지이2차 110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 신용동첨단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3층 보증금3000 /월140만원(피아노학원,미술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 신용동첨단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태권도학원,미술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상가주택매매
• 산정동 하남2지구 1층점포3칸, 2층 투·쓰리룸3개 3층복층안집 월수익550만 매7억3천만
• 월전동 룸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매6억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 상담)

NPL 투자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
▶대출이 많이 된다
▶소자본 투자가 가능하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다
▶단기내 투자금 회수 가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NPL 교육
▶배우면서 투자가능
▶실제 낙찰사례 스터디
▶1인1물건 우량물건 추천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수강료 550만원
▶1대1 개인지도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